

[ 기획 ]

'진화하는 공룡' 중국농업 현장을 가다

급성장하는 농산물 가공업

식품가공업 육성정책

농산물브랜드화 추진 다국적기업 따라잡기

농산물 부가가치화 눈 떠... 中 경제성장 동력으로

중국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농산물 가공업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 가공업은 2003년 기준 생산액은 약 5천억 위안으로 전체 공업 생산액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식품가공업의 경우 국유기업 전부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국유기업의 생산액은 7천828억 위안이며, 그 가운데 이윤은 1천278억 위안, 수출액 125억 달러로 식품가공업은 중국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적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농산물 가공산업의 대표적 주산지는 산둥성(山東省), 광둥성(廣東省),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허난성(河南省)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산둥성은 농산물가공업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선동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둥성의 경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기업은 4천262개로 총 생산액 2천42억 위안, 공업증가액 5천366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연 생산액이 5억 위안을 초과하는 매우 강력한 대형기업이 30여개에 이른다.

산둥성, 향후 5년내 70% 이상 차지

1990년대 초와 비교하여 농산물 가공업의 생산액은 2배가 넘게 성장하였다. 산둥성의 농산물 가공기업은 지속적인 발전과정을 통해 유명 브랜드를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과일, 채소, 목축,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동남아, 구미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의 수출액은 성 전체 수출총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둥성 농업 관계자 견해에 의하면 향후 5년 이내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은 성(省) 농업 부문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농업을 근간으로 공업을 일으키고 공업을 중심으로 다시 농업을 발



중국농업 발전과 함께 농산물가공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우수한 농산물을 기초로 김치, 육가공품, 우유가공제품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해 국내 소비 증대와 수출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있다.

전시키기 위해 농산물 가공 생산액을 늘리는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하여 차별화된 농산물 가공체계와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 가운데 햄·소시지는 국내 총거래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조미료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4%, 라면은 전국 총생산량의 25%에 이르고 있다. 성 전체의 대중형 농산물 가공기업은 약 280여개로 그 가운데 연 판매액이 1억 위안 이상인 대형기업은 1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제품들 가운데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춘 것로는 뤄양(洛陽)의 '춘도우'(春都), 정저우(鄭州)의 정통(鄭統) 등의 햄·소시지 생산공장은 연 판매액이 모두 50억 위안이 넘고 1년 동안 2천만 마리의 돼지를 원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다. 이는 성 전체 돼지 수량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농산물가공업의 발전을 통해 그 부가가치를 농산물 생산자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농산물가공업은 다양한 문제에 직

면하고 있다. 농산물 가공기업의 수는 많으나 그 규모가 작고 생산원가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품질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식품산업 선도 인력 빈약, 최대 고민

상장 기업에 예로 들면 총자산 규모에 있어서 10억 위안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1/3이 되지 않고 20억 위안을 초과하는 기업은 상하이의 '大江수식회사' 하나이며 5억 위안 이하의 기업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가공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술력이 뒷받침 되지 못해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가입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다국적기업이 중국 시장에 속속 진출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공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산업을 선도할 인력이 극히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농업 과학기술 업무의 중점은 생산과정 영역에 두었다. 따라서 80% 이상의 과학기술 경비와 연구역량 투입이 주로 생산과정에 집중되었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기술 투자는 극히 빈약했다. 그 결과 중국 식품가공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으며, 인재 양성 또한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글·사진 조창완 <경제학박사>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cwcho@gjdi.re.kr

중국 정부는 국무부 산하에 식품가공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계획위원회, 농업부, 재정부, 세무부, 경제무역부가 참여하여 농업생산, 가공, 수출을 종합적으로 관리·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맥도날드', '켄터키'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앞세운 다국적 기업의 중국내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용두기업'(龍頭企業)을 중심으로 농산물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 품질의 규격화·표준화를 시급히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많은 농산물의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농산물가공업에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또 가공식품이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아러푸'(家樂福)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도록 유통 현대화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중국은 농산물 수출력 증대를 위해 밀, 쌀, 옥수수, 대두, 면화, 유채, 감자, 귤, 포도 품목의 가공기술 및 가공식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이들 품목이 웰빙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식품가공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경제의 부흥, 자원이용의 합리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이 판매되는 대형마트 '지아러푸'(가르푸).

공인중개사 EBS교육방송 저자직강 출제위원 최고 교육자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허진도 시작만 1월 2일 개강 1위 합격률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광주고시학원 본원 227-8003 971-0002

www.lawbig.co.kr 재무/압류/추심 해방!! 동산경매/신용불량 해방!! 빛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여기 길이 있습니다. 파산면책/개인회생 사건만을 전담하는 광주·전남 최대의 최첨단법무사 사무소에서 채무를 탕감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원 1577-8682, 011-625-6097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광주시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수시접수) 6개월/1년 회원제 2인이론+3이론+오류정정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17개월 무료 등재(등록비) 지원 가능 17개월 무료 등재(등록비) 지원 가능

2007 겨울방학 공무원 대특강 개강 1월 2일 2007년 4-5월 국가직 시험 실시예상! 교정공무원, 사회복지사, 소방공무원, 보훈공무원, 세무공무원

www.kjk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에정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

경동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농어촌 및 도시 가정용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심야 전기 보일러를 못놓으신분,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 지금 전화하통이면 설치완료, 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